



#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12월


선교편지 제 84 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전기와 물'이 삶의 모든 영역에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지를 이곳에서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가 눈 앞에 보이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식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또한 시간제로 물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예외가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물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새도록 물탱크에 물을 받아 놓고, 물이 필요한 낮 시간에는 물탱크에 모인 물을 전기 펌프의 힘을 빌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낮에 과도하게 세탁을 많이 한다면, 물 청소를 많이 하게되면, 저녁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서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해가며 큰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불편을 주는 것은 사전에 예고없이 '전기가 끊기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 한가운데에서 신호등 전체가 꺼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관공서나 학교가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전을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가 당연히 있을법한 쇼핑몰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종업원과 손님들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 했습니다. 공공 시설이 그러할진대, 정전이 되면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거의 매일,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정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반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이고 물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전기 펌프도 무용지물이 되어 종종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정전이 되면, 식사 준비와 씻는 것등을 모두 중단하고, 무더위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매일 매일 전기와 물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예고없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더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닌 전기/전자 제품의 전원 관련 '고장'입니다. 어떠한 제품이든지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 선교 기관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에 별도의 전원 안전 장치를 연결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밥솥, 선풍기, 냉장고, ... 등의 일반 가전 제품은 별다른 안전 장치없이 공급되는 전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장과 수리'가 거의 생활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없어서는 안될 '노트북'의 모니터에 고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컴퓨터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데, 모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컴퓨터 만큼은 작동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난감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지정 컴퓨터 수리점을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 했는데, 필리핀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주문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요 기간은 자그마치 3~4주가 걸린답니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컴퓨터 없이 지낸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가 없는 3~4주간이라는 긴 시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노트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메모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보고, 찬양을 듣고, 계산을 하고, 뉴스를 보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 왔는데, 한 순간에 모든 일이 정지 된 것입니다. 그나마 낮 시간에는 선교기관에 있는 컴퓨터를 대신 사용하여 아쉬운 가운데 비슷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집에서는 이전과 달리 할 일없이 (?) 많은 시간을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도와주는 일도 없으면서 부역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공연히 강아지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딱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없음으로 인하여 왜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요즈음,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인 John Piper의 글을 기억하며, 무척 바빴었던 것 같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One of the great uses of Twitter and Facebook will be to prove at the Last Day that 'PRAYERLESSNESS' was not from lack of time." (@JohnPiper)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금년초 디고스 예일 교회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지 선교 사역의 주체가 저희 '개인'으로부터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디고스 예일 교회가 현지의 선교 센터로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개인 자격으로 주변 학교를 방문하여 학원 사역을 모색하고, 학생들을 모으고, 주민들을 만나고, 심지어 관공서나 병원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신뢰를 주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저희들의 제한된 여건만으로 학원 사역에 속한 학생들을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교인이나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주변까지도 깊이 살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에 보내주신 현지 사역자들과 교인, 학생들 모두가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디고스 예일 교회와 함께 지역 선교를 감당하는 주체로 서서히 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이지만,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피야 할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몹시 부러울 정도로 언제나 화사하게 웃는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조금 수줍음을 타는 듯 하지만, 일단 기회가 되면 흥겨운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는 밝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무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객관적인 행복 지수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문이 열려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도무지 기쁜 일이 없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묶여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다도 '눈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기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만 들릴 뿐입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습 3:12)**

금년 하반기에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에 떨어져 치료 중에 돌아 가셨고, 오빠가 괴한들의 흉기에 찔려 사망을 했고,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고, 트라이시클 운전이 생업인 아버지가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못쓰게 되었고, 병명을 알 수 없는 피붓병으로 인하여 온 몸이 부분적으로 괴사가 되어가고 있고, 어린 자녀가 덩기 모기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한결같이 치료비가 없어서 낙망중에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심방을 가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버거운 일이 될 정도로 어려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이상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교회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전에 선교 편지를 통하여 소식을 전했던 '진'의 가정이, 최근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은 3년전 장학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난 석 달 사이에 오빠는 괴한들의 흉기에 찔려 사망을 했고, 최근에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와 가슴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담한 사고를 옆에서 듣고 보기만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직접 겪고 있는 '진'의 가정은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에 집에서 장기 치료를 하게 되어 갑자기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진'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회복을 도우며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심방을 가서 보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그동안의 생활이 힘들었던지 모든 식구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서,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서 목발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도 거의 포기하다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주일 아침, 목발을 한 아버지와, 헬썩해진 어머니, 그리고 기쁨으로 상기된 '진', 이렇게 세 식구가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처음으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람으로 가득 찬 교인들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 모두를 반겨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진'이 하나님과 회중 앞에 감사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 볼 수 있었고,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로 잘 회복되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어린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도리어 온 교회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의 부모님은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이제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곳의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슌 3:17)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3.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4.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 and 학업을 위하여
5.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